

전라·광주권, 불평등 격차 전국에서 가장 높아

‘종합격차지수’ 하위 20% 비율 39% 달해 김문수 “통합특별시, 내·외부 격차 줄여야”

전라·광주권이 전국 6개 권역 중 지역종합격차지수 하위 20% 시·군·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2일 민주연구원의 ‘2026 불평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전라·광주권 41개 시·군·구 가운데 39%가 전국 지역종합격차지수 ‘하위 20%’에 해당했다.

이는 전국 6개 권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대구·경북권 32.3%, 충청권 25%, 강원·제주권 25%, 부울경권 18%, 수도권 0%보다 높았다. 반면, 전국 상위 20% 시·군·구 비율은 수도권이 37.9%로 가장 높았고, 전라·광주권은 9.8%에 그쳤다.

시·군·구별 취약 요인도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광주권의 영역별 격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27.1%, 대중교통 접근성 25.5%, 소득 19.3%, 건강 10.4% 순이었다.

특히 보고서는 전라·광주권의 특징에 대해 “소득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의 격차가 두드러진다”며 “건강과 일자리 격차도 수도권·충청권에 비해 높다”고 분석했다.

전남·광주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별 취약 요인도 뚜렷하게 갈렸다.

해남·고흥·보성·완도 등 남해안 군(郡) 지역은 일자리 영역이 취약했고 보성·장흥·강진은 인구 영역, 고흥·영암은 소득 영역에서 취약

성이 확인됐다.

반면, 광주 5개 구는 대체로 주거 영역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전남 농산어촌권은 일자리 부족·인구 감소·소득 취약 등 지역 활력 저하 문제가, 광주 도심권은 주거 여건과 정주비용 등 도시형 생활 인프라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순천·여수·광양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일자리 기반은 높지만 교육 영역 지표가 취약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은 “순천·여수·광양의 교육 영역 지표가 취약하게 나타났지만 이는 인구가 적은 군 지역과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 지역간 차이, 사교육 인프라 측정 방식 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교육의 질을 단정하기보다 전남 동부권의 교육·정주 여건을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보고서’는 지역 불평등을 소득 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건강,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 전반의 격차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라·광주권의 격차 해소도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지역별 취약 요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의 ‘2026 불평등 보고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득, 부동산, 인구, 주거, 일자리, 교육, 건강, 대중교통 접근성 등 8개 영역의 지역종합격차지수를 산출했다. 보고서상 전라·광주권은 광주·전남·전북 41개 시·군·구로 구성됐다. /김진수 기자



李태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형배 후보 싱크탱크 ‘성장과 균형’ 출범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500여명 참여 26개 분과…전남광주 미래 100년 설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할 싱크탱크 ‘성장과 균형’이 출범했다.

민형배 후보 ‘전남광주대 전환’ 선대위는 12일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정책 플랫폼 ‘성장과 균형’이 지난 1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성장과 균형’은 민간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AI, 에너지, 반도체, 기본사회, 균형

발전 등 26개 분과로 나눠 정책 개발을 맡는다.

공동대표는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정책전략대학원장과 주정민 전남대학교 대학원장이 맡았다. 두 사람은 지난 1년여 동안 민후보와 매주 ‘정책 일요학습’을 이어오며 통합특별시장 비전과 정책 방향을 함께 설계해 온 호흡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성장과 균형’이 생산하는 정책은 민후보가 통합특별시장 운영 철학으로 제시한 5대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성장통합(남부권 신산업 수도 건설) ▲균형통합(4개 권역 분업·순환 경제) ▲시민주권(시민이 설계·통제하는 자치정부) ▲녹색도시(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선도도시) ▲기본소득(기본사회·돌봄 기반 최소 보장) 등

5대 원칙 아래 통합특별시의 산업·행정·복지 모델을 구체화한다.

5대 원칙을 기반으로 편성된 26개 분과에는 ▲AI·데이터(김종원 GIST·김수형 전남대 교수) ▲기후에너지(이순형 동신대·윤진호 GIST 교수) ▲로봇·제조AX(차현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 ▲반도체·소부장(안선영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부부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책 개발을 이끈다.

‘성장과 균형’은 짧은 선거 기간 내에 속도와 완성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일까지 남은 3주 동안 ‘일일 정책 빌드 스프린트’ 체제를 가동해 집중적인 정책 설계와 시민 검증을 진행한다.

/김재정 기자

이정선 교육감 후보, 5대 핵심공약 발표

초중고 모든 학년 ‘꿈드림 교육수당’

강남 수준 입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의 본질과 지역의 미래를 연결하는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정선 예비후보는 12일 김해룡·고두갑 전 예비후보와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미래·복지·진학·입시 등 5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예비후보는 “초·중·고 전 학년 대상 ‘꿈드림 교육수당’을 보편화해 학부모 지갑을 아끼는 ‘교육 기본소득 2.0’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어 그는 “맞벌이가정의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확충과 방학 중에도 학교급식을 의무화하고 서울 강남 수준의 입시 데이터를 공교육 시스템에 녹여내 누구나 차별 없는 입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기반 교육 예산 실시간 공개 시스템’ 도입과 ‘학교업무 통합지원센터’ 설립, ‘AI 개인 튜터 및 글로벌 캠퍼스’ 구축 등 세 후보의 비전을 각각 반영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은 지난 임기 동안 다져온 실력을 바탕으로 전남과 광주가 하나된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겠다는 약속”이라며 “남은 20여일 정책의 효능감으로 사·도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성욱 기자

전진숙, 민주당 대변인 임명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을)이 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전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 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돌봄국가 전환, 통합돌봄, 여성폭력 대응, 청소년 정책, 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광주 북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광주와 호남의 목소리, 돌



봄과 민생의 현장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돌봄·복지·민생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수 기자

KH MEDICHEC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